



최고의 투자!

축복 받고 풍성한 수익을 얻는 일은 적절한 투자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새로 믿기 시작한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는 것보다 믿음에 더 큰 투자는 없습니다. 읽기, 이해하기를 돕도록 여기에서 시작하시고 매일 효과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십시오. David J. Swandt의 저서 “Out of This World: A Christian’s Guide to Growth and Purpose”로부터 발췌

Copyright © 2013 David J. Swandt. All Rights Reserved.

Published under license agreement by Twenty20 Faith, Inc. (USA). Not intended for resale.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twenty20faith.org

“보장된 반환!”

오늘날 세계에서, 이 말은 일부 사람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며, 약간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삶의 측면에 적용되는 보편적 법칙이 있습니다 : 종자 시간과 수확의 법칙, 또는 간단히 말하자면, “뿌린 것을 수확.”.

먼저 씨앗을 심지않는 한 수확을 얻을 수 없습니다. 먼저 투자를 하지 않는 한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구입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없이는 신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례를 통해 받은 수익은 품질이나 사용한 금액에 비례합니다.

같은 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추수를 할 씨를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게되는 성취와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을 쉽게 구할 수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 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아낌없이 뿌리면 그 투자에
대한 풍성한 수익이 보장됩니다.

“성경의 개요”

성경은 영원한 원리, 명확한 가르침과 기독교인으로서의 균형 잡힌, 성취되고 축복받은 삶을 사는 관련 사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하는 시간과 계절에 관계없이 절대로 부적절하게 변질될수 없으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준비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16-17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것에 대한 서면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의미를 정의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가지 사항입니다:

1 -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하나님의 대화와 계명, 그리고 궁극적으로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벽한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2 - 성경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성경의 66권의 책이 많은 저자들에 의해 쓰여졌지만, 각자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쓴 글을 쓰는 데 영감을 받았습니다.

3 -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인류에

대한 “편지”이며 그 안에 담긴 기록은
하나님의 호흡이며,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과 같은 우리의 삶에 대해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의 가장 중요한 기초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완전히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씨앗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도록 하십시오”

우리 중 대부분은 성경이 상당히 많은 - 그 중 일부는 때로는 압도적이며 불명확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독서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다음은 성경에 대한 몇 가지 사실로서, 참고할 수 있는 프레임과 더 나은 이해를 통해 독서 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세상의 창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 국가로서의 패배, 적에 의한 사로 잡힘,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 다시 돌아가는 것을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의 몇백년의 역사로 시작하는

글들을 집계 한 것입니다. 구약은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신약 성서는 예수님의 탄생 직전에 시작하여 그의 생애와 사역,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 세계에 그의 교회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글들을 종합한 것입니다.

신약에서 계시된 은혜에 의한 그리스도의 자유의 메시지는 구약에서 부과된 의식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대체합니다.

둘째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성경의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찾을 수 있는 3 가지 유형의 글이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 - 실화를 이야기하고 사람과 중요한 사건에 대한 중요한 역사적 시각을 제공하는 글.

교육적 집필 - 역사적 사건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기독교 생활, 교회 조직 및 개인 및 가족 문제의 여러 측면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책과 구절.

감화를 주는 집필 - 작가가 독자에게 감동을주고 격려하고 표현하도록 고안된 시적이고 예술적인 글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제공하는 신약 성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이들 4권은 복음서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기독교 교회의 설립과 확장을 기록한 신약 성서의 또 다른 역사서입니다.

지도서 역할을 하는 신약전서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입니다. 이것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실제로 전세계의 다른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에게 조언과 가르침을 전하는 편지입니다.

구약의 시편은 영감을 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아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 정기적으로 투자하고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한 확신을주는 시편의 영감입니다.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2-3**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심기 위해 우리는 매일 매일의 일상 생활에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삶에서 꽃을 피울 때, 하나님의
축복은 더욱 선명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뭄과 어려움의 계절동안에도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어 견뎌내게
될 것입니다.

“지식 확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은 평생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특정 접근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몇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1 - 몇가지 도구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읽고 있는것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유형의 학습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학습 성경과 용어 색인, 그리고 주제별 학습 가이드가 온라인과 도서로 모두 존재합니다.

2 - 다른 성도들과 상호 작용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관찰하기 위해 성경 공부 팀 또는 소그룹에 참여 하도록 하십시오.

3 - 계획 수립하기. 자신의 개인 독서 시간에 큰 포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전체 성경을 안내하는데 도움이 되는 YouVersion 성경 앱에서 사용가능한 다양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중 많은 것들이 1년안에 성경 전체를 다룰수 있도록 도와주며 - 이는 적어도 주목할만한 성취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더 많이 시간을 들일수록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하면,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계절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이해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게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원칙을 적용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기독교인들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이 될수 있는 때에 빛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진리에 열어두고
삶에 깊숙이 침투하도록 허용할때 그 빛의
근원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보여지는 비유로 이를 묘사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백배, 혹 육십배, 혹 삼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3-8

이야기의 씨앗은 성경을 나타내며, 토양의 다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우리의 준비성과 의지를 나타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종자 모두가 그가 원하던 결과를 산출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에 뿌린 씨앗만 원하는 결과를 보입니다.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마태복음 13:18-23을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좋은 토양”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스며 들며 우리 마음의 동기와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12